

교 당 소 식

◎ 2학기 행복한 마음을 전하는 교수 순교 스케줄

018학년도 2학기에는 단과대학별로 교수님 순교를 다닙니다.

11월 22일(목) 의과대학 27일(화) 치과대학 29일(목) 법학전문대학원

12월 4일(화) 한의학대학원/한외과대학

◎ 겨울방학 중 결식아동 도시락 후원 성금 모금 안내

2018학년도 겨울에는 방학 중 결식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해 따뜻한 도시락을 후원하려고 합니다.

- 참여방법 : 계좌이체 또는 대학교당 방문 접수

- 참여금액 : 1식 (3,000원) 이상

- 모금시한 : 11월 30일까지

- 지급대상 : 익산·전주 시내 결식아동 및 청소년들이 있는 가정

- 전달시기 : 12월중, 익산시 가정복지과 또는 지역 사회복지관에 전달

- 입금구좌 : 하나은행 705-910019-48505 (재)원불교 대학교당

◎ 가례(家禮) 의식 진행

대학교당에서는 생일, 혼인, 천도재, 열반기념제사 등 교직원 교도님들의 가례 의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당으로 신청해주시면 정성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진리불공을 통한 위력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 매일 전서봉독으로 마음의 지혜를 밝힙시다.

금주의 전서봉독은 원불교 전서 예전 '가례편'(p603-627)입니다.

경전은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려준다 하였습니다. 경전공부 잘 합시다!

보은 헌공금 (원기 103년 11월 12일 이후)

강선, 김봉곤, 김성규, 김영남, 김태훈, 나상호, 변효만, 이영숙, 임규상, 전경수

합계 : 430,000원

♥ 건학이념 실현에 은혜롭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

발행처 : 원광대학교 대학교당 / 54538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교감교무 : 보산 나상호 / 교무 : 지타원 박덕연 · 양수안 · 최현교 · 남궁현 · 표중민 · 신지겸

전화 : (063)850-5580~4 FAX : 850-5576 http://won.wk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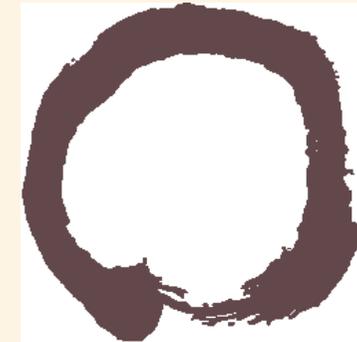
지덕겸수 도의실천



원불교 중립학교 문화조성

제971호

원기 103년 11월 19일 셋째 주



- 사대강령(四大綱領) -

사대 강령은 곧 정각정행(正覺正行) · 지은보은(知恩報恩) · 불법활용(佛法活用) · 무아봉공(無我奉公)이니,

정각정행은 일원의 진리 곧 불조 정전(正傳)의 심인을 오득(悟得)하여 그 진리를 체반 아서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작용할 때에 불편 불의(不偏不倚)하고 과불급(過不及)이 없는 원만행을 하자는 것이며,

지은보은은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범물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의 도를 체반아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중래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며,

불법활용은 재래와 같이 불제자로서 불법에 끌려 세상 일을 못할 것이 아니라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 일을 더 잘하자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에 무용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그 불법을 활용함으로써 개인·가정·사회·국가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며,

무아봉공은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는 사상과 자유 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써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성심 성의를 다 하자는 것이니라.

나 없으면 '큰 나' 드러난다.

오늘은 지은보은과 무아봉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불교 교리에서는 신앙과 수행 중 신앙의 강령에 해당합니다.

지은보은(知恩報恩)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1) 무한한 은혜를 입은 것을 알아야 한다. 2) 보은을 해야 한다. 3)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힘, 어떤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하고, 불교신자는 부처님의 자비로 살아간다 하며, 이슬람은 알라의 가피로 살아간다 하고, 유가에서는 조상님의 은덕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같은 세상 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 그 사람이 어느 종교를 신앙하든, 신앙하는 종교가 없든 다르게 말합니다.

원불교에서는 사은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한한 은혜를 입고 사는데, 편안할 때는 은혜가 있는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를 겪어야 은혜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되지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은혜를 기준으로 보면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은혜를 알아서 항상 보은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칭송합니다.

은혜를 몰라서 보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지요. 은혜를 알아도 보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지요. 심할 때는 금수만도 못하다며 비난합니다.

무아봉공(無我奉公)은 쉽게 풀어서 “남을 나로 알고 살아라.”고 합니다.

무아는 내가 없다는 뜻이지만, 나를 놓는다는 말입니다. ‘나’라는 울타리, ‘나’라는 상(相)이 없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개인이나 가족만을 위한 사상과 행동을 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대산종사 법문에 “나 없으매 큰 나 드러나고 내 집 없으매 천하가 내 집이라. 이것이 참 나요, 내집 내 고향.”이라 했습니다.

무아봉공이 제일 어려운 것은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처음부터 끝까지 무아 봉공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심을 일으켜서 어렵기도 하고 옆에서 흐드는 말에 휩쓸려서 안 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무아봉공으로 살아가면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법 회 식 순

사회 : 최재규

◎표시는 일어서서

타 종	주례자
개회	사회자
불전헌배◎ 사회자 안내로	다함께
입정	다함께
독경 (일원상서원문, 전서 24쪽)	주례자
설명기도 및 심고가◎ (성가 128장)	사회자
법어봉독 사대강령(四大綱領)	다함께
일상수행의 요법 (전서 54쪽)	다함께
설법 “나 없으면 큰 나 드러난다.”	보산 나상호 교감
다짐심고	다함께
성가 138장 『나 없으매 큰 나 드러나고』	다함께
공고	사회자
주간학사일정공고	기획처장
폐회	사회자

법 회 안 내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월요법회	(월) 09:00	대법당	법심향	(수) 12:00 3학년	법전원
호운회	2, 4주 (목) 11:00	3층 소법당		(금) 13:00 1,2학년	선과인격 수련실
원맥회	(금) 11:30	대학선방	원약회 [약대]	(화) 17:30	한의대 선명상실
원경회	3주(금) 15:00	3층 소법당	시리우스 [사범대]	(화) 13:00	자연대 선명상실
원화회	3주(금) 16:00	3층 소법당	선명상반 [자연대]		
의치한의계열	(목) 17:50	한의대 선명상실	원성회 [군사학부]	(목) 17:30	학부대 선명상실
대학생회	(월) 17:30	동아리방	가락 [학군단]	(수) 17:30	사회대 선명상실
목요선방	(목) 12:00	대학선방	선명상반 [사회대]	(화) 17:30	사회대 선명상실
인문대	(금) 17:30	사회대 선명상실	원심회	(목) 18:00	외국인 교화센터
학생생활관	2, 4주 (화) 19:00	학생생활관 선방	차명상반	(수) 13:30	경영대 선방